

간호대학생의 관리실습 전후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변화

이진희[†]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

(2018년 1월 31일 접수: 2018년 3월 1일 수정: 2018년 3월 5일 채택)

Change nursing college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y, nurses' image and leadership after management clinical practice

Jin-Hee Lee[†]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Received January 31, 2018; Revised March 1, 2018; Accepted March 5, 2018)

요약 :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정도를 살펴보고, 간호관리 실습 전후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일 지역 소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생 60명으로 자료수집은 2014년 8월 1일 부터 8월 29일 까지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 검정, 일원분산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취업용이'가 가장 많았고,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는 '임상실습시 간호사 모습'이 가장 많았으며 전공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83.4%였다.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 친척 유무 및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리더십은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 전공 만족도,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문제해결 능력은 간호사 친척 유무 및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3.32점, 간호사 이미지는 3.41점, 리더십은 3.62점이었고, 실습 후 문제해결능력($t=-2.15$, $p=.03$), 간호사 이미지($t=-2.67$, $p=.01$), 리더십($t=-2.20$, $p=.03$)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학 실습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간호대학생, 관리실습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problem solving ability, nurses' image and leadership and compare problem solving ability, nurses' image and leadership after management clinical practice. A descriptive survey design was used 60 nursing students who 4th grade, during August 2014. Data were analyzed using mean, t-test, ANOVA with SPSS 21.0. The highest area was 'get a job' in application motivation, 'from nurse during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ejh@kwu.ac.kr)

clinical training' in most influencing events.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major was 83.4% above 'moderate'. There were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in nurses' image according to having relation nurse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major, leadership according to applica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major and persona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having relation nurse and personality. The subject scored 3.32 points of full 5 on problem solving ability, 3.41 of full 5 on nurses' image and 3.62 of full 5 on leadership before management clinical practice. Scores for problem solving ability($t=-2.15$, $p=.03$), nurses' image($t=-2.67$, $p=.01$) and leadership($t=-2.20$, $p=.03$)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s after management practice. The result should b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teaching for management clinical practice.

Keywords : Problem solving ability, Nurses' image, Leadership, Nursing college student, Management clinical practic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의료현장은 간호사에게 많은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1]. 졸업 전 간호학생들에게도 간호핵심역량으로 요구되는 간호실무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 중 리더십 역량개발은 간호교육목표에 필수적이며, 최근 병원환경과 관련해서 셀프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 [2]. 취업과 관련한 간호대학생의 특성상 문제해결 능력은 추후 임상실무현장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3].

문제해결에 대한 옥스퍼드 사전의 정의를 보면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라 했고, 문제해결능력이란 개인이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유발시키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목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포괄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4]. 문제해결 능력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학생에게 문제중심학습(PBL) [5], 팀기반학습을 적용 [6] 시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졌고, 통합시뮬레이션 교육 실시 후 문제해결과정 능력이 향상되었다 [7].

리더십은 이끄는 사람이 가지는 혹은 가져야 하는 특성을 말하고, 생활의 모든 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인 동시에 삶을 잘 살아나가고 우리가 속한 집단과 사회를 좀 더 개선해 나가기 위해 모두가 지녀야 하는 생활기술이다 [4]. 리더십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은 임상수행 능력과 양의 상관이 있고 [8],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9], 간호사의 자아상과 간호업무 성과와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0].

간호사 이미지는 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간호와 간호사의 모습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종합을 근거로 [11] 간호사에 대해 갖는 전문적, 전통적, 사회적인 인상이나 신념 그리고 간호직에 대해 갖는 전망을 말한다.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로는, '간호사의 친절성', '간호사의 환자입장 배려'가 간호사 이미지 결정요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12],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75.5%가 병원내 간호사 모습이라고 하였으며 [13], 간호사 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이 있고 [14], 전통적 이미지 요인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 후 병원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로변화의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었다 [15].

간호관리학 실습은 임상현장 학습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자질 및 태도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간호사 역할과 실습내용이 이전의 다른 교과목 실습과는 다소 차이가 나며, 주로 관찰 및 교육 받는 대상도 일반간호사보다 수간호사로 변화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4학년의 문제해결

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정도를 살펴보고, 간호관리 실습 전후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고,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을 비교한다.
- 3) 대상자의 실습 전후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4학년의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을 파악하고 간호관리학 실습 전후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 60명으로 간호관리학 실습 전·후 설문조사하였다.

2.3.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 까지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비밀보장, 익명성, 참여 거부, 참여 중단 가능 등을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10~15분 정도였고,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2.4. 관리실습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은 간호관리학 실습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로서 교과목 학습목표는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하고, 간호단위 협력관계를 설명하며 간호리더십을 분석할 수 있다'로 하여 2주의 관찰, 실습 및 집담회로 구성되었다. 실습 시간은 총 90시간으로 실습 전에는 관리실습안내와 과제 설명을 듣고, 실습 첫 주에는 간호단위관리 계획/업무/관리자 역할을 관찰하고 두 번째 주에는 관찰과 더불어 관리활동 개선 제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실습 전 일자에 대한 실습일지를 작성하고 집담회에서

의견을 나누도록 구성하였다.

2.5. 연구도구

2.5.1.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도구는 Warner(2007)가 문제해결능력 진단을 위해 개발한 조사도구를 국내(주)PSI컨설팅에서 번안한 내용을 활용하여 정태영 [16] 이 개발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수평적 사고4문항, 인식 및 판단 4문항, 대안평가 및 결정 4문항의 3개 능력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세경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863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826이었다.

2.5.2. 간호사이미지

간호사이미지 도구는 강혜영 등 [13] 이 개발한 간호사이미지 총화평점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적 이미지 6문항, 전통적 이미지 6문항, 간호직 전망 3문항, 사회적 이미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임을 의미한다. 강혜영 등(2003)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940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877이었다.

2.5.3. 리더십

리더십 도구는 한국교육개발원(정희욱 등, [4])에서 개발한 지도력 진단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목표달성 능력, 재창조능력, 통솔력, 인간관계 능력 및 목적의식의 5개 요인,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정희욱 등 [4] 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940이었고 본 연구에서 Chronbach's α =.939이었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

른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은 t-test와 ANOVA로 분석했다.

88.3%는 자신이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취업 용이'가 50%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는 '임상실습시 간호사 모습'과, '병원방문시 간호사 모습'이 가장 많았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0%, '보통'이 43.4%였고,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비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은 Table 2와 같다.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 친척 유무 및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리더십은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 전공 만족도,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문제해결능력은 간호사 친척 유무 및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60)

Characteristics	Category	n(%)
Application motivation	aptitude and interest	13(21.7)
	accoding to grade	3(5.0)
	persuaded by family	8(13.3)
	get a gob	30(50.0)
	to serve	4(6.7)
	except	2(3.3)
Having relation nurse	Yes	22(36.7)
	No	38(63.3)
Health status	poor	6(10)
	moderate	16(26.7)
	healthy	38(63.4)
A school Record	low(below3.0)	17(28.3)
	middle(3.0~below4.0)	22(36.7)
	high(over 4.0)	21(35.0)
Religion	none	38(63.3)
	christian	14(23.3)
	buddhism	3(5.0)
	catholic	5(8.4)
Most Influencing Events	mess media	9(15.0)
	visit a hospital	21(35.0)
	from relation nurse	4(6.7)
	from nurse during clinical training	23(38.3)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major	from professor's mention	3(5.0)
	unsatisfaction	10(16.6)
	moderate	26(43.4)
Satisfaction with clinical training(2 nd ~4 th)	satisfaction	24(40.0)
	unsatisfaction	12(20.0)
	moderate	21(35.0)
Personality	satisfaction	27(45.0)
	positive	53(88.3)
	negative	7(11.7)

Table 2. Differences of Nurses' Image, R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urses' Image	t/F (Scheffe)	Readership	t/F (Scheffe)	Problem Solving Ability	t/F (Scheffe)	
	M±SD		M±SD		M±SD		
Application motivation	aptitude and interest ^a	3.53±0.47	3.74±0.37	3.63** a,c,d,e> b,c,d,f	3.20±0.34	2.17	
	according to record ^b	2.82±0.29	3.03±0.21		3.33±0.14		
	persuaded by family ^c	3.46±0.25	3.68±0.42		3.24±0.28		
	get a job ^d	3.38±0.36	3.57±0.37		3.42±0.41		
	to serve ^e	3.59±0.05	4.03±0.18		3.39±0.05		
	except ^f	3.40±0.00	3.20±0.03		2.68±0.06		
Having relation nurse	Yes	3.55±0.34	3.71±0.33	1.47	3.44±0.29	2.01*	
	No	3.32±0.38	3.56±0.42		3.25±0.40		
A school Record	low(below3.0)	3.35±0.40	3.58±0.36	0.92	3.31±0.26	0.41	
	middle(3.0~below4.0)	3.49±0.46	3.57±0.50		0.52		3.37±0.48
	high(over 4.0)	3.36±0.25	3.69±0.30				3.27±0.33
Religion	none	3.36±0.43	3.60±0.42	1.24	3.30±0.38	0.92	
	christian	3.56±0.24	3.61±0.38		1.32		3.32±0.38
	buddhism	3.22±0.08	3.37±0.45				3.12±0.19
	catholic	3.40±0.24	3.91±0.04				3.55±0.42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major	unsatisfactory ^a	3.29±0.29	3.71±0.36	3.53* c>b	3.40±0.46	1.87	
	moderate ^b	3.31±0.40	3.40±0.38		8.42** a,b<b,c		3.21±0.41
	satisfaction ^c	3.36±0.35	3.81±0.32				3.40±0.27
Satisfaction with clinical training	unsatisfactory	3.31±0.34	3.55±0.54	1.44	3.10±0.55	2.78	
	moderate	3.34±0.40	3.54±0.32		1.32		3.39±0.33
	satisfaction	3.50±0.37	3.71±0.37				3.36±0.27
Personality	positive	3.42±0.40	3.67±0.38	0.62	3.37±0.36	2.85**	
	negative	3.32±0.21	3.19±0.26		3.26**		2.96±0.22

* p<.05, ** p<.01

Table 3. The Comparison of Nurses' Image, R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n=60)

		M	SD	t	p
Nurses' Image	Before	3.41	0.38	-2.67	.01
	After	3.63	0.53		
Readership	Before	3.62	0.40	-2.20	.03
	After	3.78	0.44		
Problem Solving Ability	Before	3.32	0.37	-2.15	.03
	After	3.50	0.55		

3.3. 간호관리학 실습전후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변화

간호관리학 실습 전후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변화는 Table 3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는 실습 전 3.41점에서 실습

후 3.63점으로, 리더십은 실습 전 3.62점에서 실습 후 3.78점으로, 문제해결능력은 실습 전 3.32점에서 실습 후 3.50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able 3).

4.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은 간호관리학 실습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간호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이 문제해결과정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는 연구(협력학습 관련 [17], 액션러닝 관련 [18], [9])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교과목 특성상 간호관리자의 자질 및 태도 습득이 강조된 영향으로 사료된다.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로 임상실습 중 병원내 간호사 모습과 병원 방문 시 간호사 모습이 가장 컸는데 이는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75.5%가 병원내 간호사 모습이라고 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13]. 임상실습 후 간호사이미지의 변화는 연구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실습 후 더 긍정적이었다는 연구 [19] 와 더 부정적으로 변하였다는 연구 [20] [21] 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으로 변했던 원인은 부정적으로 변하였다는 연구에서 유추했던 사회적 지위, 존경 및 간호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부분 [22] [19] 이 간호관리학 실습에서는 수간호사의 모습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간호관리학 실습은 이전의 다른 실습교과와는 다르게 일반간호사 업무에 대인관계, 정보관리, 의사결정 등 수간호사의 관리적 역할 [23] 이 추가되는 개념으로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리더십은 간호학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간호학 지원동기에서는 '적성과 흥미'라고 답한 학생의 리더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적성고려'가 '타인 권유'보다 셀프 리더십이 높았다는 연구 [24] 와 유사한 결과이다. 전공 만족도 관련해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생활기술 관련변인에 관해 조사한 연구 [25] 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이 교수들과 어울리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늘려나간 것으로 사료된다. 성격과 관련해서는 성실성과 외향성, 개방성이 셀프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친다 [26] 는 연구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외향성이 셀프리더십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27] 가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자신의 성격을 '긍정적'이라고 답한 학생의 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은 간호사 친척 유무 및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대인관계가 좋은 대학생이 문제해결능력이 높았다 [28] 는 연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이 더 높게 나타난 것 [29] [30] 과 연관된다.

간호관리학 실습 전후로 문제해결능력,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에서 과제수행방식과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에 차이를 조사한 연구 [31] 에서 관리실습 전 보다 실습 후 문제해결 능력 점수가 상승되는 추이를 보였다. 실습 전후 문제해결 점수를 통계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아 본 연구에 직접 연관 짓기는 조심스러우나, 높은 의사소통-개발과제군에서 문제해결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부분은 본 연구에서 관리실습 동안 수간호사와 의사소통할 기회가 주어지고 과제 형식도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높았던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간호관리학 실습교육은 다른 임상실습보다 수간호사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관찰 대상도 주로 수간호사가 된다는 특이점을 반영하여 간호관리학 실습 운영자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과 운영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료현장에서 리더십과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하여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인이 되어야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관리학 실습을 통한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및 문제해결능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 친척 유무 및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리더십은 간호학과 지원동기, 간호학 전공 만족도,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문제해결능력은 간호사 친척 유무 및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실습 후 간호사 이미지, 리더십, 문제해결능력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간호사 이미지는 다른 임상실습에서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증가되었는데 이를 통해 간호관리자와 일반간호사에 대한 간호사 이미지를 제고한 효과적인 임상실습 운영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학과에서 실시되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학 실습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8년 광주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 되었습니다.

References

1. Y. J. Son, Y. A. Song, "Effects of Simulation and Problem-Based Learning Courses on Student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Learn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1 pp. 43-52, (2012).
2. L. Watson, "Self-leadership: becoming an exceptional leader", *Radiol Technol*, Vol.75, No.6 pp. 457-467, (2004).
3. E. J. Ji, M. R. Bang, H. J. Jeon,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4 pp. 571-579, (2013).
4. H. U. Jung, B. G. Park, S. W. Choi, I. G. Kang, "A Study to Develop the Diagnostic Scale of Leadership",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5. S. J. Kang, E. J. Kim, H. J. Shin, "Convergence Study about Problem-based Learn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Skills, Academic Self-efficacy, Motivation toward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7, No.2 pp. 33-41. (2016).
6. S. O. Kim, S. M. Kim, "Effect of Team-Based Learning Applying for Nursing Students on Critical Thinking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2 pp. 1151-1161, (2016).
7. M. Y. Moon, "Effects of Convergence-based Intergrated simulation Practice program on the Clinical decision making, Problem solving process, Clinical competence and Confide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performanc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7 pp. 271-284, (2017).
8. K. A. Jang, H. S. Lee,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4 pp. 177-186, (2015).
9. K. S. Jang, S. J. Park, "Effect of Action Learning Approaches on Learning Outcomes in Nursing Managements Co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8, No.4 pp. 442-451, (2012).
10. S. Min, Y. J. Jeong, H. S. Kim, S. Y. Ha, Y. J. Ha, E. A. Kim,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Relationship between Self-image and Work Performance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5, No.3 pp. 355-364, (2009).
11. P. A. Kalisch, B. J. Kalisch, *Careerist Toward a New Ideal. The Changing Image of the Nurse*, p.179-193, Addison-Wesley Pub. Co. (1987).
12. S. H. Lee,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0, No.2 pp. 219-228, (2005).
13. H. Y. Kang, M. S. Kim, J. H. Kim, H. S. Kim, M. H. Park, Y. J. Park, N. H. Song, N. H. Lee, H. K. Jun, "A Survey on public image on nurse(s): Based on

- teacher, broadcast, legal and administrative official at a local city”,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6, No.1 pp. 109-124, (2001).
14. J. Choi, N. S. Ha,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5, No.1 pp. 54-63, (2009).
 15. K. S. Jung, *Factors Influencing Career Types and Their Changes among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degree, Dong-A University, (2014).
 16. T. Y. J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Managers’ Life-Long Education Coaching Leadership and Its Member’s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Ability*, Ph. D.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2011).
 17. K. S. Jang, N. Y. Kim, S. A. Rhyu, Y. M. Kim, K. H. Jung, S. J. Park, “Effect of Collaborative Learning on Problem-solving Processes according to the Level of Metacognitive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Manag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3, No.2 pp. 191-198, (2007).
 18. Y. M. Kim, Y. H. Kim,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ction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0, No.6 pp. 312-322, (2010).
 19. H. S. Kang, W. O. Kim, “Changed in the Image of the Nurse for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Vol.9, No.3 pp. 379-387, (2002).
 20. J. J. Yang, “Nurses’ Image perceived by Student Nurse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9, No.1 pp. 64-72, (2003).
 21. H. S. Jung, Y. S. Yoo, “Image of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Image Determinants”, *Journal of Korea Public Health Nursing*, Vol.24, No.1 pp. 29-38, (2010).
 22. K. A. Park, M. R. Song, “Factors that Influence Nursing Image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of Nursing*, Vol.31, No.4 pp. 584-597, (2001).
 23. I. S. Kim et al, *Nursing Management 4th ed.*, p.26-27, Seoul, Hyunmoon Press, (2015).
 24. H. S. Kang, Y. Y. Kim,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Vol.18, No.5 pp. 617-625, (2017).
 25. M. R. Lee, “A Study on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Leadership Life Skill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1 pp. 65-73, (2016).
 26. M. S. Kim,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Decision Making Type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2, No.4 pp. 441-451, (2016).
 27. J. J.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elf-Leadership*,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Ulsan, (2011).
 28. K. S. Son,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Skills and the Ability of Abili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14, No.1 pp. 1-27, (2017).
 29. J. H. Choi,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Local Cities : Focu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5 pp. 2473-2485, (2011).
 30. J. H. Kim, K. J. Kwon, S. H. Lee, “Factors Influencing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 Digital Convergence*, Vol.15, No.4 pp. 295-307, (2017).
31. M. H. Lee, H. K. Kim, S. H. Jung, I. H. Moon, "Effects of Task Performance Style in Nursing Management Practicum on Problem -Solving and Nursing Competency according to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7, No.1 pp. 106-114, (2011).